

유아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

수줍음 및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과의 관계

You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ts Relations with Their Shyness and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n's Peer Relation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 사 서 유 진*

부 교 수 도 현 심**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겸임교수 최 미 경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 Seo, Yu-Jin

Associate Professor : Doh, Hyun-Sim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Duksung Women's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 Choi, Mi-Kyung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of children's shyness and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n's peer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the relative influence of children's shyness and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n's peer relation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195 mothers of 3-year-olds and their 13 teacher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data were obtained using three kinds of questionnaires regarding shyness, parental involvement, and social competence. Findings revealed that shy children showed less popularity · leadership and social participation for both boys and girls. The more orchestrations mothers exerted, the more popularity · leadership boys showed. And the more advice and support mothers provided, the more interpersonal adjustment girls showed. For boys, shyness was more influential on popularity · leadership than maternal orchestrations were. Findings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 role of shyness in children's early social competence for both boys and girls.

△주요어(Key Words) : 수줍음(shyness),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m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n's peer relations),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

I. 서 론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적응능력으

로서의 사회적 능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타인의 행동에 반응하고, 부정적 행동 표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는 유아기에 그 기초가 형성된다(Doh & Falbo, 1999; Provost & LaFreniere, 1991). 유아기 아동은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표현함으로써 만족감

* 주 저 자 : 서유진 (E-mail : yaslove@hanmail.net)

** 교신저자 : 도현심 (E-mail : simdoh@ewha.ac.kr)

을 얻게 되고, 이러한 만족감은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한다(Hartup, 1983). 반대로,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적응에 어려움을 보여 또래관계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비사회적인 행동을 보이기 쉽다(Parker & Asher, 1987). 이 시기에 형성한 또래 관계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청소년기(Asher, Oden & Gottman, 1977)와 성인 초기의 심리적 적응(Cowen, Pederson, Babigian, Izzo & Trost, 1973)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 유아기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관심은 일종의 예방적인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 연령, 기질 등을 들 수 있다(국주영, 1996; Doh & Falbo, 1999; Mendez et al., 2002). 특히, 타고난 특성으로서의 수줍음(shyness)은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사회적응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적극적으로 사교적인 행동과 대조적 개념이라 볼 수 있는 수줍음은 그 소극적 특성으로 인해 아동의 여러 사회적 행동들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수줍은 아동은 아동기에 중요한 또래와의 관계에서 또래들로부터 거부되거나 무시되고(Asendorpf, 1990), 또래수용성이 낮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Hymel et al., 1990).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동은 또한 부적절한 상호작용 방식이나 사회적 기술 부족, 제한된 사회적 접촉 등 사회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된다(강소연, 1995).

또래관계 측면에서 볼 때, 유아기의 수줍음은 더 나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적응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간과하기 어렵다. 수줍음은 또한 아동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또래들로부터 수용도가 낮을 뿐 아니라 고립되기 쉬워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기도 한다(도현심·정승원, 1997). 그러나 이러한 몇몇 안 되는 기존의 국내 연구들 가운데 아동의 또래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유아기 중에서도 그 초기에 속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기에 진입하는 연령층인 만 3세 유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수줍음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어린 시기에 경험하는 수줍음이 개인의 발달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확인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수줍은 아동들의 긍정적인 사회적 발달을 꾀하기 위한 노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보다 예방적인 의미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관련된 변인으로는 수줍음

과 같이 개인의 타고난 특성 외에도 아동을 둘러싼 환경 변인으로서 가족환경을 고려할 수 있다. 생애 초기에 중요한 사회적, 정서적 경험의 대부분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 시기에 경험하는 부모와의 관계는 이후의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은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어머니의 영향은 주로 양육 행동과 사회성 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본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발견되어 왔으나(이영·나유미, 1999; 이은혜·박경자·정현숙, 1998; Chen, 1997; Dishion, 1990; Domitrovich, 1998), 최근 몇몇 연구자들(Ladd et al., 1993; Parke, 1992)은 어머니가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개념적 의미에서 두 개의 경로, 즉 간접적 경로와 직접적 경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박주희, 2001). 간접적 경로는 부모가 아동과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행동과 정서적 과정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직접적 경로는 부모가 아동의 또래관계 기술을 향상시키고 또래관계를 촉발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행하는 노력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아동에게 또래와의 사회적 접촉 기회를 제공하거나 놀이 친구를 선택해주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가르치고,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조언을 해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직접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add et al., 1993).

이와 같이 어머니가 담당하는 또래관계 설계자, 중재자, 감독자, 상담자로서의 기능은 또래관계를 촉진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회화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머니와 아동 간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일상적 양육행동과는 다소 구분되며(Pettit & Mize, 1993), 통칭하여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Ladd et al., 1992). 또래와의 접촉기회를 제공하거나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술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직접적 또래관계 개입행동을 통한 부모의 지원은 특히 어린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2~6세의 다양한 연령에 속한 아동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지도(supervision)가 자녀의 놀이 지속 시간과 긍정적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 놀이에 보다 빈번하게 참여할 때, 아동은 또래 간에 유능하다고 밝혀진 사회적 기술을 더욱 자주 사용하였다(Bhavnagri & Parke, 1991). 또한, 적극적으로 숙련된 전략이나 긍정적 훈육 방법과 같은 지도·감독 행동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보다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유지하고 보다 높은 사회적 능력을 보였다(Finnie & Russell, 1988). 어머니가 또래의 놀이 활

동을 직접 지도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놀이 활동을 감독하는 행동을 통해서도 자녀들의 또래 간 능력이 증진되었으며(Dishion, 1990), 또래관계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조언해 줄 때에도 자녀의 또래유능성은 높게 나타났다(Cohen & Woody, 1991). 대체로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관계에 간접적으로 관여(예: 친구들과 놀 때 지켜야 할 약속 정하기) 할수록 자녀들은 또래관계에서도 더 성공적이었다. 이 외에도, 어머니가 자녀의 친구관계에 관한 대화를 많이 할수록 유아기 아동의 또래관계가 긍정적이고 사회성도 높게 나타났다(Laird et al., 1994). 이 연구는 직접적으로 어머니의 조언 및 상담 행동을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점과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대화의 양과 질에 관한 초기 연구였다는 점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조언 및 지지 행동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부모의 개입행동을 주제로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국외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에 그치긴 하나 국내에서도 이를 주제로 한 몇몇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 전략 가운데 중재와 감독과 같은 행동은 만 5~6세 아동의 긍정적 또래유능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박주희, 2001), 어머니의 조정 및 중재와 감독을 포함하여 조언 및 지지가 높을 경우, 만 3~5세 유아는 높은 친사회성을 가지고 있었다(송정, 1999).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어 아동의 사회적 발달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아동 자신의 특성적인 측면을 간과함으로써, 양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게다가, 이러한 몇 편의 연구들을 제외하고는, 국내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보다 직접적 방식의 영향은 일상적인 양육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다양한 관리나 개입전략의 영향과 효과는 각기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발달적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개입과 관리 전략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양육행동 외에도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관련변인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들은 그 원인을 기질, 연령 등의 내재적 변인과 환경적 영향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또래관계 개입행동 관련 변인에 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개인적, 환경적 변인들 간의 관련성과 그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다소 상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수줍음과 같은 기질적 특성이 영아기의 행동억제와 추후 사회적 부적응의 가장 중심이 되는 원인임을 주장하며(Fox et al., 2001; Kagan & Snidman, 1999) 유전적 기질이 행동억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입증한 연구결과(Belsky et al., 2000)가 보고되는가 하면, 두려움이 많은 기질을 가진 절름마기 아동에게 '지나친 우려'를 보이는 양육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행동억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정옥분 등 2002; Rubin et al., 1997)도 발표되고 있다. 즉, 특정한 기질을 가진 아동일지라도 양육행동에 따라 아동의 행동억제가 낮아지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행동억제와 어머니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2세 때에는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에 4세 때에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정옥분 등, 2003)와 같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아동행동에 대한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비일관적으로 보고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만 3세의 어린 유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개인내적 변인인 수줍음과 환경적 변인인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시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상대적으로 보다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발달을 이해하는 데 보다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어머니가 자녀의 성에 따라 보이는 양육행동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을 통해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 역시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연구에서 어머니는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애정적으로 반응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었으며(Endsley et al., 1979; Fristod & Karpowitz, 1988), 남아에게는 높은 성취기대를 갖고 어릴 때부터 독립성을 더 조장하며(하승민, 1985) 보다 엄격하고 통제적인 반면, 여아에게는 온정적이며 수용적이었다(권연희, 1996; 이수연, 1985).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성별 분석을 시도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 기초하여, 만 3세 유아기 아동의 수줍음과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이 각각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아동의 수줍음과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이 유아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보다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아동의 수줍음은 사회적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2>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 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3> 아동의 수줍음과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10개의 유치원과 3개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남녀 아동(남아: 110명, 여아: 85명)의 어머니 195명과 교사 13명이 참여하였다(평균: 남아와 여아 각각 41.9개월과 42.6개월, 표준편차: 남아와 여아 각각 3.50과 3.65).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유아기에 그 기초가 형성된다는 기존 연구결과(Provost & LaFreniere, 1991)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유아기 아동을 연구대상 연령층으로 선정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어머니의 경우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16.9%(33명), 대학교 졸업이 53.8%(105명), 대학원 이상 11.3%(22명), 아버지의 경우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15.4%(30명), 대학교 졸업이 52.3%(102명), 대학원 이상 23.1%(45명)으로, 과반수의 부모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아동의 수줍음,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 행동, 그리고 아동의 사회적 능력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들은 또래관계 내에서 표출되는 수줍음과 사회적 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수줍음과 사회적 능력은 아동의 교사에 의해 평가되었다.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은 어머니 자신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에 의해 평가되었다.

1) 아동의 수줍음

본 연구는 아동의 수줍음을 측정하기 위해 Buss와 Plomin(1984)이 개발한 교사보고용 EAS(The EAS 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 Teacher Ratings)의 수줍음 요인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의 수줍음에 관한 문항은 총 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내용은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친구를 쉽게 사귀다'(역코드)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평가하는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수줍음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s α 는 .79이었다.

2)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 행동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 행동은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얼마나 자주 개입하고 도와주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Cohen(1990)이 제작한 부모의 개입 행동 질문지(Parental Involvement Checklist, PIC)를 번안, 수정한 송정(199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래 Cohen (1990)의 어머니의 개입행동 질문지(PIC)는 조언 및 지지(advice & support), 조정(orchestration), 감독(monitring), 높은 관심(high-concern) 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송정(1999)은 예비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고 유아기 발달에 적합하지 않는 2문항을 삭제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조정 및 중재, 조언 및 지지, 감독 등 3가지 하위 요인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 척도의 하위 요인을 보다 명료하게 구분하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잠재변인을 규명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조정 및 중재' 요인(9문항), '조언 및 지지' 요인(8문항), '감독' 요인(8문항) 등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의 고유치는 조정 및 중재가 5.06, 조언 및 지지가 3.23, 감독이 3.08이었으며, 전체 변량 중 각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은 각각 21.08%, 13.46%, 12.84%로서, 이 세 요인은 전체 변량 중 47.38%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및 중재 요인은 자녀가 친구를 사귄 수 있도록 놀이 기회를 제공하거나 놀이 계획을 세우는 행동과 관련된 문항들로, 조언 및 지지 요인은 자녀가 친구를 사귀거나 또래간의 문제가 있을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조언해 주는 등의 문항들로, 그리고 감독 요인은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놀이 활동 및 놀이친구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전혀 하지 않는다'의 1점에서 '1주에 여러 번'의 5점으로 평가하는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개입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s α 를 살펴본 결과, 조정 및 중재 요인

은 .89, 조언 및 지지 요인은 .77, 감독 요인은 .72이었다.

3)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Doh와 Falbo(1999)가 개발한 '사회적 능력 척도: 유치원 아동용(Social Competence Questionnaire for Kindergarteners)'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적응성(Interpersonal Adjustment)', '인기도·지도력(Popularity/Leadership)', '사회적 참여(Social Participation)' 등의 3개의 하위 요인을 포함하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된다. 대인적응성 요인에는 '친구들과 놀 때,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한다'(역코드), '친구들과 놀다가 화를 잘 낸다'(역코드) 등의 11문항이, 인기도·지도력 요인에는 '여러 아이들 중에서 대표로 뽑힐 때가 많다', '친구들을 잘 이끌어 나간다' 등의 8문항이, 사회적 참여 요인에는 '혼자 노는 것보다 여럿이서 함께 노는 것을 더 좋아 한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 한다' 등의 5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평가하는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Cronbach's α 를 살펴본 결과, 대인적응성은 .88, 인기도·지도력은 .92, 사회적 참여는 .86이었다.

3. 조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05년 3-4월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10개의 유치원과 3개의 어린이집 등 13개 기관의 각 1개 반(5세반)에서 수집되었다. 조사자는 해당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방문하여 질문지 조사방법 및 응답요령을 설명하였고, 어머니용 질문지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어머니에게 전달되어 조사된 후 회수되었으며, 교사용 질문지는 어머니용과 함께 회수되었다. 배부된 총 300부의 질문지 가운데 어머니용 질문지는 230부(회수율: 76%), 교사용 질문지는 215부(회수율: 71%)였으며, 이 중 어머니용 질문지와 교사용 질문지가 모두 회수된 경우는 215부(회수율: 71%)였다.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0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95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개개 교사는 평균 15명의 아동을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12.0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 척도는 요인 구성을 파악함으로써 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아동의 수줍음,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아동의 수줍음과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아동의 수줍음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의 수줍음과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 아동 모두 아동의 수줍음은 사회적 능력의 세 가지 하위요인들 가운데 대인적응성을 제외한 두 가지 요인들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아동의 수줍음은 인기도·지도력(남: $r=-.58, p<.01$, 여: $r=-.54, p<.01$), 사회적 참여(남: $r=-.53, p<.01$, 여: $r=-.56, p<.01$)와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여, 수줍음이 높을수록 아동은 낮은 인기도·지도력과 사회적 참여를 보였다(<표 1>).

2.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몇몇 하위 요인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조정 및 중재는 남아의 인기도·지도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r=.19, p<.05$),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해 조정 및 중재를 많이 할수록 남아의 인기도·지도력이 높았다. 또한 어머니의 조언 및 지지와 여아의 대인적응성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r=.27, p<.05$), 어머니가 자녀

<표 1> 아동의 수줍음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관계(남/여)

	아동의 사회적 능력		
	대인적응성	인기도·지도력	사회적 참여
아동의 수줍음	-.09/-.06	-.58**/-.54**	-.53**/-.56**

**p<.01

의 또래관계에 대해 조언 및 지지를 많이 할수록 여아는 높은 대인적응성을 보였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은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표 2>).

3. 아동의 수줍음과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수줍음과 어머니 개입행동이 남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인 아동의 수줍음 및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남아의 인기도·지도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수줍음과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조정 및 중재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이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양자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았다.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아의 인기도·지도력에 대해 수줍음($\beta = -.57, p < .001$), 어머니의 조정 및 중재($\beta = .16, p < .05$)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수줍음과 어머니의 조정 및 중재가 남아의 인기도·지도력을 설명하는 정도는 36%이었다(<표 3>). 여기서, 앞서 언급된 첫 두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함께 고려해 보면, 어머니의 조언 및

지지와 여아의 대인적응성간의 유의한 관계를 제외하고, 아동의 수줍음과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은 대인적응성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고, 사회적 참여에 대해서는 아동의 수줍음만이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또래관계의 기초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만 3세 아동의 타고난 개인적 특성인 수줍음과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비롯하여, 아동의 수줍음과 어머니의 개입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수줍음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아동의 수줍음은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 아동은 수줍음이 높을수록 낮은 사회적 능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줍음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부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Radl & Zimbardo, 1981)과 일치하며, 수줍음이 타인과 가까운 관계를 갖게 하고 지도자가 되거나 언어적 유창성과 자기주장이 필요한 직업을 선택하는 데 방해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손실을 갖는다는 연구결과(Zimbardo, 1982)와도 관련된다. 또한,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동은 부적절한

<표 2>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관계(남/여)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	아동의 사회적 능력		
	대인적응성	인기도·지도력	사회적 참여
조정 및 중재	.00/.01	.19* / .10	.10/.16
조언 및 지지	.07/.27*	.05 / .07	.04/.02
감독	-.01/.02	.03 / -.06	.09/.09

* $p < .05$

<표 3> 남아의 인기도·지도력에 대한 수줍음과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조정 및 중재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인기도·지도력	
	B	β
수줍음	-.47	-.57***
어머니의 조정 및 중재	.10	.16*
R ²	.36	
F	54.79***	

* $p < .05$, *** $p < .001$

상호작용 방식이나 사회적 기술 부족, 제한된 사회적 접촉 등 사회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보고한 국내 연구 결과(강소연, 1995)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양자 간의 밀접한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어 남녀 아동 모두 수줍음이 높을수록 인기도·지도력이 낮고, 사회적 참여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 아동 모두 수줍음은 사회적 능력의 하위 요인인 대인적응성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는데, 이는 대인적응성에 대한 비일관적 정의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대인적응성의 의미가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자 간의 관계는 부적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정적 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아무런 관련성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Kagan et al., 1988).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수줍은 아동의 대인적응성이 낮다고 보고한 국내 연구결과(도현심, 1995)와 달리 본 연구는 유아기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만 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도 해석이 가능하다. 대인적응성이 또래 간에 생산적이고 상호 만족할 만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또래와 사이 좋게 지내는 능력으로 정의될 때(Cassidy & Asher, 1992; O'Malley, 1977), 본 연구의 대상 연령층에게는 다른 하위 요인인 인기도·지도력이나 사회적 참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는 특성으로 측정 상 어려운 점에 기인할 수도 있다. 게다가 교육기관의 교사는 외현적인 문제행동을 표출하는 아동에 비해 수줍음이 있는 아동의 경우 큰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것으로 여겨,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는 대인적응성의 경우 수줍음이 많은 아동과 적은 아동간에 별다른 차이 없이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해 조정 및 중재를 많이 할수록 인기도·지도력이 높았으며, 여아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해 조언 및 지지를 많이 할수록 대인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를 빈번히 마련해 주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자녀에게 조언과 상담을 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유능하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Bullock, 1989; Ladd & Hart, 1992)과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기술 등을 조언해 줄 때 자녀의 또래유능성도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Cohen & Woody, 1991)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즉, 또래와의 놀이 기회 경험을 갖고 이에 대해 부모와 이야기를 나

누며 적절한 조언, 지도를 받는 것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개입행동과 아동이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가 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기대나 행동에서의 성차를 보고하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의 성에 따라 가치나 기대를 달리 할 수 있어(Devereux et al., 1969), 어머니는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애정적으로 반응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는(Endsley et al., 1979; Fristod & Karpowitz, 1988) 반면, 남아에게는 성취기대를 많이 하고, 어린 연령에서부터 독립성을 더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하승민, 1985).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아에게 보다 높은 사회적 성취를 기대하고, 그러한 사회적 성취에 대해서 더욱 보상을 하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어머니가 아들에게 더 엄격하고 통제적으로 대하고 딸에게는 따뜻하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권연희, 1996; 이수연, 1985), 또래관계에서도 남이는 또래를 이끄는 인기도·지도력에서 여아는 다른 아동과 조화를 이루어 지내는 대인적응성과 보다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 중 감독이 남녀 아동 모두 사회적 능력의 어느 하위요인들과도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흥미롭다. 이는 유아기 초기에 속하는 본 연구대상 아동들의 경우,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감독이 어머니의 조정 및 중재와 조언 및 지지와 같은 다른 하위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자녀에게 보다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또래간의 문제 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자녀의 또래관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어머니의 조정 및 중재, 조언 및 지지와 달리, 어머니의 감독은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식하는 정도의 다소 소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어머니의 감독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에는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천희영 등, 2001)에서 부모의 감독이 높은 집단의 아동들은 낮은 집단의 경우보다 수줍음-고립성이 낮게 나온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연령층을 통한 비교 연구를 통해 보다 분명히 밝혀지리라 사료된다.

끝으로, 아동의 수줍음과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이 남녀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아의 인기도·지도력에 대해서만 수

좁음, 어머니의 조정 및 중재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앞서 언급한 수줍음 및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 각각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상관관계와 연결시켜 고려해 볼 때, 남녀 아동 모두 아동의 인기도·지도력 및 사회적 참여와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변인은 아동의 수줍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줍음은 유전 혹은 출생 전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질적 특성(Buss & Plomin, 1984; Engfer, 1993)으로 시간이 경과해도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이라는 연구결과(Asendorpf & Aken, 1994; Broberg, 1993)를 지지한다. 특히, 본 연구 대상의 어린 연령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이 시기에는 이러한 연구결과들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만 3세 유아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일종의 환경적 특성에 속하는 어머니의 행동에 비해 아동의 타고난 기질 특성의 일종인 수줍음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욱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수줍음과 사회적 능력의 각 하위 요인들간에 발견된 결과에 기초할 때, 수줍음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낮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그 하위 요인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수줍음만이 아동의 인기도·지도력, 사회적 참여의 유일한 관련 변인이었던 점에 비해, 대인적응성의 경우 어머니의 조언 및 지지가 유일한 관련변인이었다는 결과와도 연결시켜 해석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즉,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인기도·지도력이나 사회적 참여와 달리 대인 적응성의 경우 아동의 수줍음 정도와 관계없이 발달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예상과 달리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지 않았으며, 이는 아직은 어머니의 행동과 같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발견된 본 연구 대상 아동의 어린 연령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제한점에 근거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는 또래관계 형성 초기에 속하는 만 3세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을 발견하는 데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만 3-5세의 유아기를 포함한 학령기 등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여 연령에 따라 그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또래관계 개입 행동이 아동의 발달 단계에 걸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해 개입행동을 하는 빈도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녀의 또래관계를 관리하고, 개입하는 데 있어서의 전략의 차이, 관찰, 언어적 지시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어머니의 또래관계 개입행동에 대한 질문지를 이용한 측정과 더불어 관찰법과 같은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유아기 초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동의 수줍음과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개입행동이라는 각각 아동 특성 변인과 환경 특성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양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특히, 유아기 초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수줍음의 중요한 역할을 발견함으로써, 자녀 양육 시 자녀의 기질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새로운 환경에서 각 아동이 보이는 개인적 기질차를 비롯하여 양육자와 아동간 적합성(goodness of fit)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와 동시에,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수줍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은 덜하지만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과 태도, 조언 등의 중요성도 어느 정도는 확인함으로써,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개입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음을 제안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긍정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보다 적극적인 양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부모의 올바른 양육행동을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일 : 2006년 07월 15일
- 심사일 : 2006년 08월 18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10월 13일

【참 고 문 헌】

- 강소연(1995). 아동의 수줍음과 놀이실에서의 사회적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국주영(1996). 학령전 아동의 언어 능력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연희(1996).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도현심(1995). 6학년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33-45.
- 도현심·정승원(1997). 부모의 사회성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수줍음. *아동학회지*, 18(2), 149-161.
-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

- 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정(1999). **자녀의 또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인지, 개입 행동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연(1985).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나유미(1999). 유아의 애착 및 어머니-유아 상호작용과 또래상호작용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19-32.
- 이은혜·박경자·정현숙(1998).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보육시설 및 가족변인의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36(6), 27-40.
- 정옥분·박성연·Kenneth Rubin·윤종희·도현심(2002).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억제: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4), 71-88.
- 정옥분·Rubin Kenneth·박성연·윤종희·도현심(2003). 영아기 기질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2-4세 아동의 행동억제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8개국 비교문화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29-38.
- 천희영·옥경희·김미혜(2001).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와 부모감독에 따른 또래관계 및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9(10), 153-168.
- 하승민(1985).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와 자녀양육 가치관. **아동학회지**, 6(2), 73-84.
- Asendorpf, J. B.(1990). Development of inhibition during childhood: Evidence for situational specificity and two factor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6, 721-730.
- Asendorpf, J. B. & Van Aken, M. A. G.(1994). Traits and relationship status: Stranger versus peer group inhibition and test intelligence versus peer group competence as early predictors of later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65, 1786-1798.
- Asher, S. R., Oden, S. L. & Gottman, J. M.(1977). Children's friendships in school settings. In Kats, I. G.(Ed.), *Current topic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Vol. 1) (33-62). Norwood, NJ: Ablex
- Belsky, J. & Rha, J. & Park, S.(2000). Exploring reciprocal parent and child effects in the case of child inhibition in US and Korean sampl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 338-348.
- Bhavnagri, N. & Parke, R. D.(1991). Parents as direct facilitators of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Effect of age of child and sex of parent.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Relationships*, 8, 541-549.
- Broberg, A. G.(1993). Inhibition and children experiences of out-of home care. In Rubin, H. & Asendorpf, J. B.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151-176). Hillsdale, NJ: Erlbaum.
- Bullock, J. R.(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management of peer interactio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 263-269.
- Buss, A. H. & Plomin, R.(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assidy, J. & Asher, S. R.(1992).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50-365.
- Chen, J.(1997). *Parental goals, parenting practices and chinese preschoolers' socially competent behaviors in Taiw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Cohen, J. S.(1990).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during middle child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terloo, Ontario, Canada.
- Cohen, J. S. & Woody, E.(1991).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The contributions of mothers' experience value, and beliefs*. Paper presented at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WA.
- Cowen, E. L., Pederson, A., Babigian, H., Izzo, L. D. & Trost, M. A.(1973). Long-term follow-up of early detected vulnerabl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438-446.
- Devereux, E. C., Bronfenbrenner, U. & Rogers, R. R.(1969). Child-rearing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A cross-national comparis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 257-270.
- Dishion, T. J.(1990). The family ecology of boys' peer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874-892.
- Doh, H. S. & Falbo, T.(1999).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1), 149-162.

- Domitrovich, C. E.(1998).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social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child perceptions of parents and pe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Endsley, R. C., Hutcherson, M. A., Garner, A. P. & Martin, M. J.(1979). Interrelationships among selected maternal behaviors, authoritarianism and preschool children's verbal and nonverbal curiosity. *Child Development*, 50, 331-339.
- Engfer, A.(1993).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hyness in boys and girls: A 6-year longitudinal study. In Rubin, H. & Asendorpf, J. B.(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49-80). Hillsdale, NJ: Erlbaum.
- Finnie, V. & Russel, A.(1988). Preschool children's social status and their mothers' behavior and knowledge in the supervisory role. *Developmental Psychology*, 24, 789-801.
- Fox, N. A., Henderson, H. A., Rubin, H. H., Calkins, S. D. & Schmidt, L. A.(2001). Stability and instability of behavioral inhibition and exuberance: Psychophysiological and behavioral factors influencing change and continuity across the first four years of life. *Child Development*, 72, 1-21.
- Fristod, M. A. & Karpowitz, D. H.(1988). Norms for the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modified form. *Psychological Reports*, 62, 665-666.
- Hartup, W. W.(1983). Peer relations. In Hetherington, E. M. & Mussen, P. H.(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 (103-196). N.Y.: Wiley.
- Hymel, S., Rubin, K. H., Rowden, L. & Lemare, L.(1990). Children's peer relationship: Longitudinal predic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middle to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2004-2021.
- Kagan, J. Reznick, J. S., Snidman, N., Gibson, J. & Johnson, M. O.(1988). Children derivatives of inhibition and lack of inhibition toward the unfamiliar. *Child Development*, 59, 1580-1589.
- Kagan, J. & Snidman, N.(1999). Early predictors of adult anxiety disorders. *Biological Psychiatry*, 46, 1536-1541.
- Ladd, G. W. & Hart, C. H.(1992). Creating informal play opportunities: Are parents' and preschoolers' initiations related to children's competence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179-1187.
- Ladd, G. W., Le Sieur, K. D. & Profilet, S. M.(1993). Direct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children's peer relations. In Duck, S.(Ed.), *Learning about relationships: Understanding relationship processes series*(vol. 2) (152-183). Newbury Park, CA: Sage.
- Ladd, G. W., Profilet, S. M. & Hart, C. H.(1992). Parents' management of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Facilitating and supervising children's activities in the peer culture. In Parke, R. D. & Ladd, G. W. (Eds.), *Family-peers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215-25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aird, R. D., Pettit, G. S., Mize, J. & Lindsey, E.(1994). Mother-Child conversations about peers: Contributions to competence. *Family Relations*, 43, 425-432.
- Mendez, J. L., Fantuzzo, L. & Cicchetti, D.(2002). Profiles of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Africa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73, 1085-1100.
- O'Malley, J. M.(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23, 29-44.
- Parke, R. D.(1992). Epilogue: Remaining issues and future trends in the study of family-peer relationships. In Parke, R. D. & Ladd, G. W.(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425-43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arker, J. G. & Asher, S. R.(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ettit, G. S. & Mize, J.(1993). Substance and style: Understanding the ways in which parents teach children about social relationships. In Duck, S.(Ed.), *Learning about relationships: Understanding relationship processes series*, 2, (118-151). Newbury Parke, CA: Sage.
- Provost, M. A. & LaFreniere, P. J.(1991). Social participation and peer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ren: Evidence for discriminant and convergent validity. *Child Study Journal*, 21, 57-72.
- Radl, S. L. & Zimbardo, P. G.(1981). *The shy child*. N.Y.: McGraw-Hill.
- Rubin, K. H., Hastings, P. d., Stewart, S. L., Henderson, H. A. & Chen, X.(1997). The consistency and con-

comitant of inhibition: Some of the children, all of the time. *Child Development*, 68, 467-483.

Zimbardo, P. G.(1982). Shyness and the stresses of the human connection. In Goldberger, L. & Breznitz, N. S.(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466-481). N.Y.: The Free Press.